

##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시장 분석

### 1. 최근 업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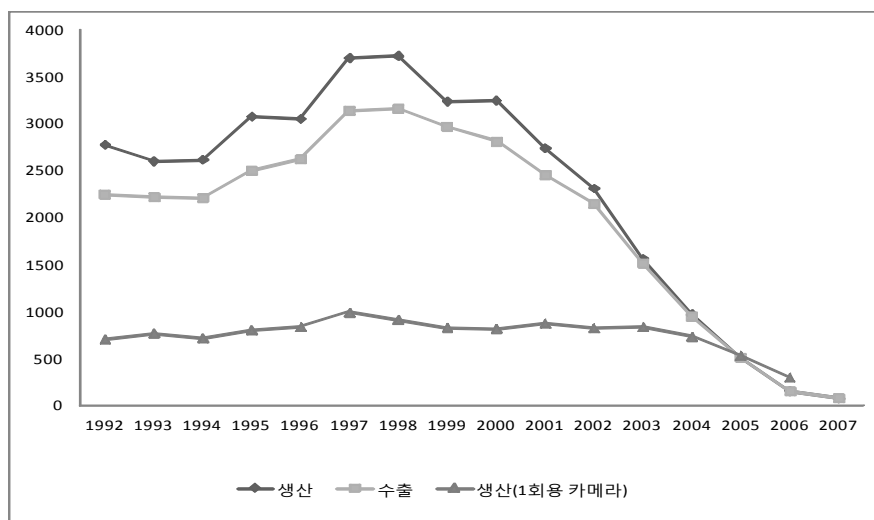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계는 빠른 속도로 기업간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업체간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2003년에 오랜 전통을 유지해오던 미놀타와 과거 필름업체였던 코니카가 그 해 8월에 경영통합을 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음
  - 그 이후 이 두 회사가 통합한 회사(코니카미놀타)는 2006년 3월 필름사업과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디지털 일안 반사식(DSLR) 카메라사업과 렌즈 교환식 디지털카메라사업을 소니에게 모두 양도하였음
  - 2005년 9월에는 1997년부터 디지털카메라 시장에 진출했었던 교세라가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면서 생산을 중단하였음
- 특히 2008년은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계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해로 지금의 업계 구조를 구축하는데 주요했음
  - 2008년 3월에 오랜 전통을 이어오던 펜탁스가 렌즈생산 업체인 호야에 흡수통합되면서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계는 8개사(캐논, 니콘, 소니, 펜탁스, 파나소닉, 올림푸스, 후지필름, 카시오)체제가 구축되었음
  - 또한 파나소닉이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면서 디지털카메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음
- 한편 최근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업계는 디지털 일안 반사식(DSLR) 카메라를 중심으로 생산대수를 늘려나고 있는 추세임
  - 반면 그 동안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주도했던 콤팩트디지털카메라의 일본 국내 판매는 2005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해외 판매는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지난 2006년 마츠시다전기산업이 올림푸스와 공동개발로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분야에 진출한 이후 이 분야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대로 코니카미놀타로부터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사업을 사들인 소니가 가세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 시장 규모

- 일본의 카메라 생산은 1962년에 생산대수와 수출 모두 독일을 능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음
- 특히 35밀리 콤팩트 카메라는 1978년에 1,181만대였던 생산대수가 1998년에 3,721만대로 증가하면서 일본은 카메라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
- 그러나 그 이후 디지털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일반 카메라는 급격히 생산이 감소하였음(<그림1>참조)

<그림1> 카메라 생산 · 수출 추이(단위: 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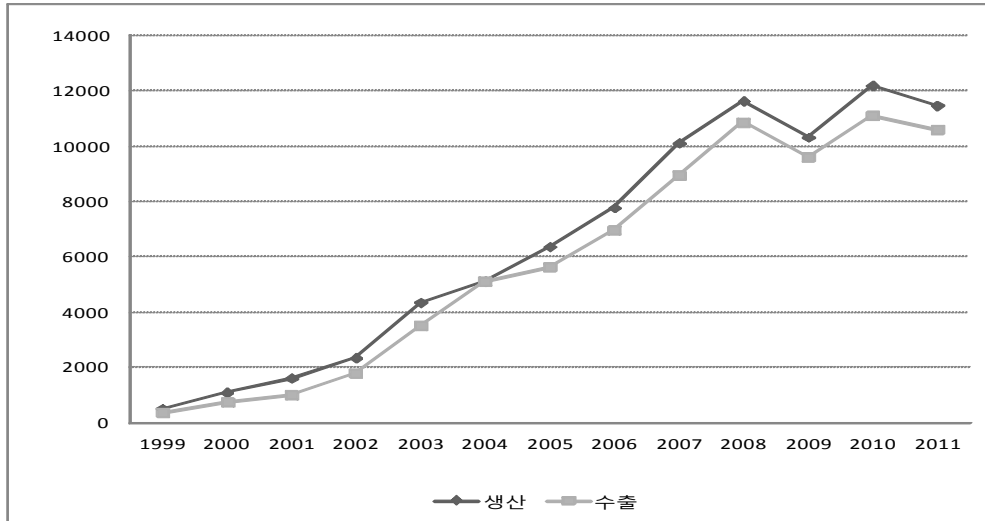


자료: 카메라映像機器工業会(<http://www.cipa.jp/>)에서 작성

-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생산 및 수출 대수는 2008년까지 매년 전년대비 20~3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그림2>참조)
- 최초 생산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생산대수가 2007년에 1억대를 돌파하였고 이듬해에는 수출도 1억대를 넘었음
-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졌던 지난 2009년에 디지털카메라 수출 대수가 1억대 미만으로 한때 내려갔으나 그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11년에 1억6백만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 2011년 일본 디지털카메라 총생산 대수는 1억2천만대에 육박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

〈그림2〉 디지털카메라 생산 · 수출 대수 추이(단위: 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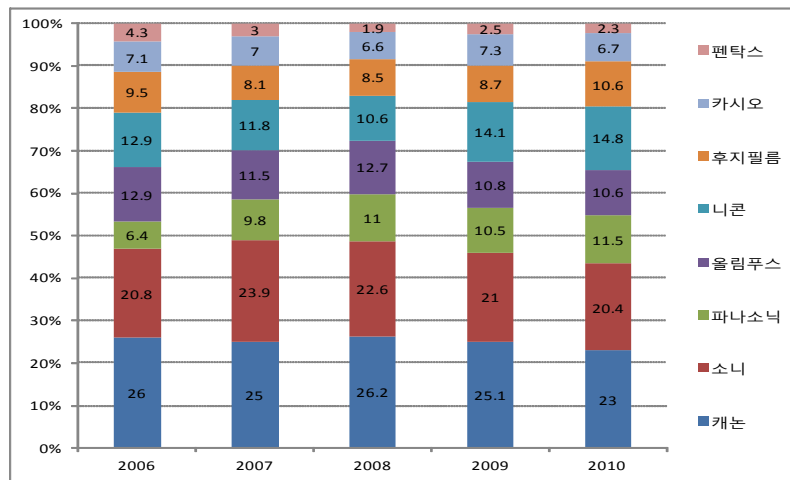


주) 통계에 인용한 일본 업체: 올림퍼스, 카시오계산기, 캐논, 산요IC솔루션즈, 시그마, 세이코엡손, 소니, 니콘, 파나소닉, 후지필름, 펜탁스리코이미징 등 11개 업체  
 자료) 카메라映像機器工業会(<http://www.cipa.jp/>)에서 작성

### 3. 시장 점유율

- 각 업체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출하량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캐논과 소니가 1,2위를 차지하고 있음(〈그림3〉참조)
  - 다만 캐논과 소니 두 회사를 더한 시장점유율이 2006년 46%에서 2008년 49%로 증가한 이후 2009년에 46%, 2010년에는 43%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 동안 캐논의 강세에 밀려 있던 니콘, 파나소닉 등이 일안 반사식 카메라 분야에서 판매호조를 보이며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 3위 이하의 시장점유율 순위는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니콘이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의 판매호조 영향으로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줄곧 수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캐논의 시장점유율은 파나소닉과 니콘 등의 호조에 밀려 다소 줄어들고 있음
  - 한편 파나소닉은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 출시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2006년 6%에서 2008년 11%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11.5%까지 상승하였음

〈그림3〉 디지털카메라 업체별 출하 비중



자료) 渡辺広明(2012), “デジタルカメラ市場の確立過程とその展開—その機構の連続性と非連続性を中心に—”, 日本大学経済科学研究所紀要, 第42号에서 재인용

- 한편 2012년 7월 한 달 동안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개별 제품별 판매 순위에서는 캐논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카시오와 소니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는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캐논 제품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표1>참조)
  -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판매 순위 20위 안에 캐논제품은 7개, 카시오 제품은 4개, 소니 제품은 3개, 니콘제품과 후지필름제품이 각각 2개, 올림푸스와 파나소닉이 각각 1개씩 들어가 있음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의 판매실적은 일본 디지털카메라의 양대 기업인 캐논과 니콘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파나소닉이 선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표2>참조)
  - 판매순위 상위 6개 제품 중 3개가 니콘제품일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니콘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음
  -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분야에서 캐논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니콘이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분야에서는 선전하고 있는 모습임
  - 캐논은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서도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분야와 비슷한 정도의 판매 순위를 기록하면서 명실공히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계의 최고 업체임을 입증하고 있음

〈표1〉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판매 순위(2012년 7월 실적)

순위	제조사	모델명	발매일	가격(엔)
1	캐논	IXY 600F Samantha Thavasa Petit Choice	2011/10	20,100
2	캐논	PowerShot A2300	2012/03	9,900
3	캐논	IXY 600F	2011/09	15,900
4	소니	Cyber-shot HX30V	2012/03	43,700
5	카시오	HIGH SPEED EXILIM EX-ZR300	2012/06	33,800
6	니콘	COOLPIX S3300	2012/02	12,400
7	니콘	COOLPIX S3300	2012/02	12,600
8	소니	Cyber-shot W610	2012/02	9,600
9	파나소닉	LUMIX SZ7	2012/02	21,800
10	카시오	HIGH SPEED EXILIM EX-ZR300	2012/06	32,200
11	후지필름	FinePix F770EXR	2012/02	26,600
12	카시오	EXILIM EX-ZS150	2012/03	14,700
13	카시오	HIGH SPEED EXILIM EX-ZR200	2011/11	22,900
14	소니	Cyber-shot WX100	2012/03	23,900
15	후지필름	FinePix JX550	미확인	9,100
16	캐논	IXY 600F	2011/09	17,500
17	올림푸스	OLYMPUS Tough TG-620	2012/02	21,800
18	캐논	PowerShot A2300	2012/03	9,400
19	캐논	PowerShot A2300	2012/03	9,500
20	캐논	IXY 220F	2012/02	20,100

자료) BCN홈페이지(<http://bcnranking.jp>)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주) BCN은 일본 전역의 가전 양판점에서 판매한 실적을 매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함.

〈표2〉 디지털 일안 반사식(DSLR)카메라 판매 순위(2012년 7월 실적)

순위	제조사	모델명	발매일	가격(엔)
1	캐논	EOS Kiss X5	2011/03	76,800
2	니콘	D3100 200mm	2011/07	56,700
3	파나소닉	LUMIX GF5	2012/04	66,300
4	니콘	D5100	2011/04	80,500
5	캐논	EOS Kiss X4	2010/02	54,700
6	니콘	Nikon 1 J1	2011/10	61,700
7	캐논	EOS Kiss X5 EF-S18-55 IS II	2011/03	64,800
8	올림푸스	OLYMPUS PEN mini E-PM1	2011/10	44,500
9	파나소닉	LUMIX GX1	2011/11	57,300
10	소니	NEX-5N	2011/09	60,500
11	캐논	EOS Kiss X6i EF-S18-135 IS STM	2012/06	127,500
12	캐논	EOS 60D	2011/11	105,400
13	소니	a65	2011/10	83,100
14	올림푸스	OLYMPUS PEN Lite E-PL3	2011/09	66,900
15	소니	NEX-7	2011/11	114,300
16	캐논	EOS Kiss X6i	2012/06	129,700
17	소니	NEX-5N	2011/09	60,700
18	캐논	EOS 60D	2010/09	73,300
19	소니	NEX-F3	2012/06	75,900
20	니콘	D5100 18-55VR	2011/04	6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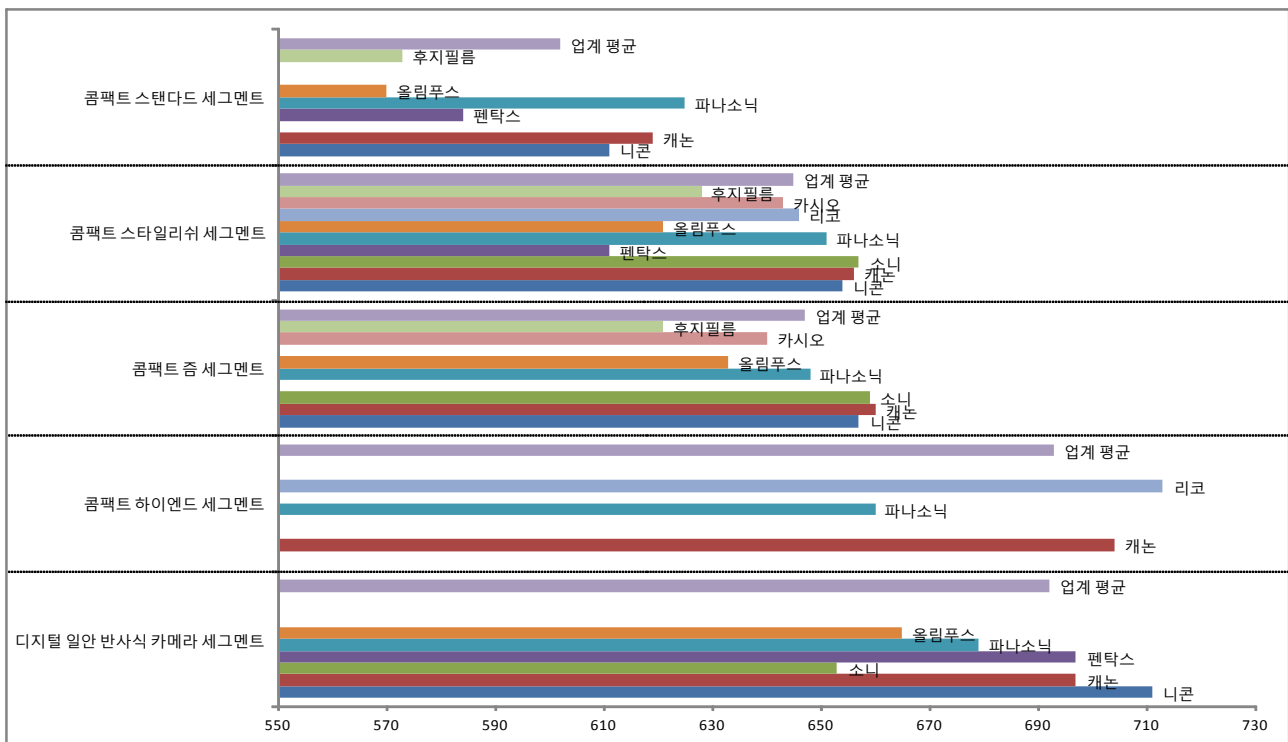
자료) BCN홈페이지(<http://bcnranking.jp>)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주) BCN은 일본 전역의 가전 양판점에서 판매한 실적을 매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함.

## 4. 소비 동향

- J.D.POWER가 실시한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의 경우 니콘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1,000점 만점에 711점을 확보하여 업계평균 692점을 크게 웃돌고 있음
  - 영역별 만족도 평가에서는 ‘기능·성능’에서는 니콘과 캐논이, ‘화질’에서는 니콘, ‘디자인’에서는 파나소닉, ‘조작성’에서는 펜탁스가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4〉 디지털카메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1,000점 만점)



주)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세그먼트: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컴팩트 하이엔드 세그먼트: 발매 시점 가격이 5만엔 이상으로 광학줌 배율 10배 미만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컴팩트 줌 세그먼트: 광학줌 배율 10배 이상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컴팩트 스타일리쉬 세그먼트: 발매 시점 가격이 5만엔 미만으로 광학줌 배율 10배 미만, 건전지 미사용 콤팩트디지털카메라

컴팩트 스탠다드 세그먼트: 발매 시점 가격이 5만엔 미만으로 광학줌 배율 10배 미만, 건전지 사용 가능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자료) J.D. 파워아시아·파시픽(2009), “日本デジタルカメラ顧客満足度調査”에서 작성

- 콤팩트 하이엔드 세그먼트에서는 조사 대상 3개 업체 중에서 리코가 종합점수 713점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704점으로 캐논이 3위는 660점을 확보한 파나소닉이 차지함

- 리코는 ‘디자인’ 과 ‘조작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디자인’에서는 771점을 기록하면서 업계평균보다 무려 61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음
  - 한편 ‘기능·성능’ 영역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캐논이 ‘화질’에서는 파나소닉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 콤팩트 줌 세그먼트에서는 660점을 기록한 캐논이 1위에 올랐고 2위는 소니 3위는 니콘이 차지함
- 특히 캐논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웃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조작성’ 영역이 가장 높은 평가를 기록함
  - 2위를 차지한 소니는 ‘디자인’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능·성능 영역은 카시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 콤팩트 스타일리쉬 세그먼트에서는 9개의 조사 대상업체 중에서 소니가 종합 만족도 65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캐논 3위를 니콘이었음
- 소니는 ‘디자인’ 과 ‘화질’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디자인’ 영역은 평균보다 32점 높은 707점을 기록함
  - ‘조작성’ 영역에서는 캐논, ‘기능·성능’ 영역에서는 리코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마지막으로 콤팩트 스탠다드 세그먼트에서는 파나소닉이 625점으로 1위를 차지함
- 파나소닉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웃돌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능·성능’, ‘디자인’, ‘화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2위 캐논은 ‘화질’ 과 ‘조작성’에서 3위 니콘은 ‘디자인’ 영역에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 5. 향후 시장 전망

- 디지털카메라 분야는 일본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많지 않은 제품 중 하나이지만 일본의 8개 회사가 치열하게 시장 쟁탈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함
- 주요 8개 회사의 판매 동향을 근거로 살펴보면 캐논과 니콘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신흥업체라 할 수 있는 파나소닉, 소니, 후지필름이 그 뒤를 따르

고 있으며 올림푸스, 카시오, 펜탁스(호야)는 다소 열위에 위치하고 있는 양상임

- 시장 점유율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캐논은 2010년에 전년대비 11% 증가한 2,670만 대를 생산하였으나 콤팩트디지털카메라 보다는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가 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
  - 특히 EOS시리즈의 판매호조가 최근 캐논의 성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파나소닉과 소니는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 분야가 기업 전체의 성장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래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소비층이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 분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렌즈교환식은 디지털 일안 반사식에 가까운 화질을 구현하기 때문에 종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소비층 중에서 고화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고 있음
- 가장 고전을 하고 있는 업체는 올림푸스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판매부진으로 생산계획을 점차 줄어가고 있음
  - 이처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완전하게 전자화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는 신규진입이 비교적 쉬어 삼성전자 등 한국업체는 물론 중국업체 등도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는 상태임
  - 그 결과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이 이미 상당수준의 고화질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상대적 우위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따라서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축소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가 생기면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결국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대체품과 신규진입자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수익성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따라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분야에 상대적 우위성을 가진 업체는 이 분야에서 확고한 정상의 자리를 확보하든지 시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체품(스마트 폰 혹은 휴대전화)의 디바이스업체로 전환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전형적인 일본기업들의 독무대로 외국업체 제품 판매는 극히 드문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향후 주력상품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선택한 바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설 공산도 있음
  - 현재 세계 디지털 카메라시장은 캐논이 1위, 소니와 니콘이 뒤를 잇고 있고 삼성전자는 4위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앞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전문가용이나 DSLR 등의 고급제품은 일본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 삼성이 카메라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78년으로 오래되었지만 휴대전화나 TV에 비교하면 성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임
- 최근 삼성이 카메라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카메라는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 앞으로는 ‘스마트 카메라’로 진화할 것이며 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임
  - 디지털 기술과 IT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스마트 카메라’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지난 2014년 4월 와이파이가 작동하는 ‘스마트 카메라’를 출시하고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음

#### <참고자료>

1. 카메라映像機器工業会(<http://www.cipa.jp>)
2. BCD홈페이지(<http://bcnranking.jp>)
3. J.D. 파워아시아·패시픽(2009), “日本デジタルカメラ顧客満足度調査”
4. 渡辺広明(2012), “デジタルカメラ市場の確立過程とその展開—その機構の連続性と非連続性を中心に一”, 日本大学経済科学研究所紀要, 第42号
5. 東洋経済新報社(2012), “IT・ネット業界地図2012年版(会社市季報 図解シリーズ)”
6. 富士キメラ総研(2011), “ワールドワイド エレクトロニクス市場総調査”
7. 豊田賢二(2006年), “デジタルカメラ発達史”, 日本写真学会誌, 69巻4号